

앞서는 삼성... 뒤쫓는 LG 전고체 배터리 경쟁 가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리딩하겠다.”(삼성SDI)

“양산 시점이 경쟁사보다 약간 늦을 수 있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는 지난해 수원에 설치한 파일럿 설비(S라인)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했다. ABS 사업화 추진팀은 S라인을 개선해서 전고체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이 향상되면 울산공장에 S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내년 울산공장에 차세대 S라인을 설치해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고체 배터리 첫 고객은 고급차를 생산하는 BMW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SDI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강조했다. 최윤호 대표는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폼팩터 제품 양산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주영 부사장은 “남이 준비했을 때 시작하면 늦기 때문에 처음부터 리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자신했다. 삼성SDI 최 대표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첫 생산 삼성SDI 3년 뒤 양산 초격차 기술력으로 시장 선도 한 발 늦은 LG엔솔 심기일전 완성도 집중... 세계 1등 자신

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를 높여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완성도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겠다는 다짐은 삼성SDI보다 개발 속도가 느림을 인정하는 발언이기도 했다.

BMW는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을 보였다. 화재 위험이 출력이 강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전기차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2021년부터 완성차 회사로 대상으로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설명해 왔다. 전고체 배터리 첫 고객은 고급차를 생산하는 BMW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SDI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폼팩터 제품 양산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시

장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타가 공인하는 K 배터리 선두 주자다. 그러나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선 삼성SDI보다 뒤졌다. LG에너지솔루션 김제영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양산 시점이 삼성SDI보다 늦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삼성SDI보다 3년 늦은 2030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니켈 함량을 높여 성능을 개선한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 최강자로 손꼽힌다. 그러나 삼성SDI가 차세대 배터리로 손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한발씩 다가설수록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전고체 배터리가 2차전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후발주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가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래 기술이다 보니 완성도가 높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인터배터리 2024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지 않았다.

이성준 기자jun@skyedaily.com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나라사랑 공생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개정 100만 결기대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이 적힌 종이상자를 무너트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남중수 기자

막말·실언... 선거판 진흙탕 싸움

4·10 총선 D-30

4월 총선이 여야 인사들의 실언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 비하 표현인 “2짜”를 언급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 몇몇 인사도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10일 정치권에 의하면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 유세를 위해 한 음식점을 방문했다. 시민들과 인사 나눈 이 대표는 한 젊은 남성을 향해 “설마 2짜, 2짜 아니겠지?”라고 물으며 웃음 터뜨렸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녹화돼 공개됐다.

각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일부 과격한 지지자들이 쓸 법한 단어가 제1야당 대표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품격은 찾아볼 수도 없다. 참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과 제3지대 모두에서 쓴소리가 이

이재명 ‘설마 2짜’ 발언 파문

“野대표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

성일종 ‘이토 통감’ 부적절 인용

한동훈 ‘말조심’ 긴급 옐로카드

어지자 이 대표는 결국 사과했다. 그는 9일 자신의 SNS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에는 ‘0점 웃음’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친명계에 의한 비명계 공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현역 의원 평가에서) 0점 맞은 분도 있다”며 웃었다. 조웅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섬뜩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 언사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2014년 SNS에서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말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

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9일 선다윗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전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에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한 게 아니라 정치에서 전문성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의원은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재육성·장학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라면서도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의 인재 육성을 예로 들었다.

반발이 일자 성 의원은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 숙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공천 확정 후보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오준한 기자joh@skyedaily.com

소상공인 기대 저버리고 사육만 챙긴 ‘소공연’ 회장



은 지난달 1일 당론으로 이를 거부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결정이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 전 회장이 돌연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사실을 밝혀자 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 전 회장 공천 신청과 관련해 소공연의 한 관계자는 “오 전 회장은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소상공인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악법인 중대처법을 강행처리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며 “오 전 회장이 대변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소상공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 11면에 계속

노태하 기자thoh@skyedaily.com

오세희씨 ‘민주 비례대표’ 신청 ‘정치행위 금지’ 정관위배 논란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세희(사진)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한 가운데 재임 시절 보여줬던 반(反)소상공인 행적과 정치 편향성 등이 논란이다.

6일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한 오 전 회장은 당장 소상공인들이 적용 유예

를 호소해오던 중대처해제법(중처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으로 공천을 신청해 소상공인의 비난을 사고 있다.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문제는 이 적용범위가 대기업 뿐 아니라 동네 식당이나 빵집 등에도 적용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수천의 소상공인은 수차례 집회를 열고 중처법에 적용 유예를 촉구했었지만 민주당

임플란트 후엔 잇몸관리하세요!

잇몸가드 검가드



- ☑ 특허받은 5종 콤플렉스
- ☑ 잇몸염증 예방
- ☑ 잇몸질환 예방
- ☑ 치주질환 예방